무인년 조계종 동안거 방장 – 조실스님 해제법어 요약

조 심었는데 콩 나왔도다

해인총림 방장
법전스님

해제대중들이여

"부처있는 곳에 머무르지 말라."
"그대들의 심장 간장 등 오장을 다 뒤바꾸는구나."
"부처없는 곳엔 급히 지나가라."
"기러기는 지나갔는데 소리만 남는구나."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잘못 이야기 하지말라."
"문 앞을 나설 때 벌써 틀렸느니라."
"그러면 가지 않겠습니다."
"조를 심었는데 콩이 나왔도다."
"버들 꽃을 꺾으라. 버들꽃을 꺾으라."
"해가 지고 또 밤이 되는줄 몰랐다고 한들 어찌 사람이 젊어질 수야 있겠는가?"

절단삼관과자희(截斷三關過者稀)라
임봉수해진전위(臨鋒誰解振全威)리오
양화적처하인견(楊花摘處何人見)고
풍송만천사설비(風送漫天似雪飛)로다.

계율은 철길 같은 것이니…

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

오늘 해제법문은 우리나라 공부인의 삼종병(三種病)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계율(戒律)을 방편으로 생각하고 철저(徹底)히 지키려는 노력이 없는 것이다. 계율은 기차(汽車)가 굴러가는데 철길 같은 것이니, 탈선하면 전복되어 갈 수 없고, 승객도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둘째, 일은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운력(運役)에 참석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일이 공부에 방해된다면 어째서 백장화상이 '一日不作一日不食'을 주장하셨는가.

세째, 결제때만 공부를 하고 해제철에는 공부를 놔 버리고 방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가 습관화되며 사수(死水)에 잠긴 용처럼 활기가 없으니, 어느 때를 기다려 불조현관(佛祖玄關)을 타파(打破)할 것인가.

하시(何時)에 출두유기(出頭有期)리요
영탁백의천천만(寧度白衣千千萬)이나
불탁공문반개승(不度公門半介僧)이로다.

매어 준것이 푸는 것이요

화계사 조실
숭산스님

(주장자를 한번치고) 이 소식은 매어 준것이 푸는 것이요, 푸는것이 매는 것입니다. 산이 물이되고 물이 산이된다는 소식입니다. 반야심경에 색즉시공(色卽是空)이 공즉시색(空卽是色)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장자를 한번치고) 이 소식은 매는 것도 없고 푸는 것도 없다는 소식입니다. 산도 공(空)하고 물도 공(空)하여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경계입니다. 반야심경에는 제법공상(諸法空相)이라 얻을 것도 없고 얻을 바도 없어 열반에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주장자를 한번치고) 이 소식은 매는 것은 매는 것이요 푸는 것은 푸는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산은 그대로 산, 물은 그대로 물인것입니다. 반야심경에는 고득아뇩다라삼약삼보리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주장자를 한번치고) "악(一喝)"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가는데 오늘은 정월대보름날 해제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청산자부동(靑山自不動)이요, 백운자거재(白雲自去來)라
운산본공리(雲山本空裏) 정월십오일(正月十五日)이라.

사견에 떨어지지 말지어다

동화사 금당선원조실
진제스님

상단하여 주장자를 들어보이시고, 인간세상사가 꿈속에 말을 타고 산천을 구경하는 것처럼 허무하고 분명하지 못이로다. 모든 중생들아 이일을 밝힐지로다 일상생활중에 정진하여 "어떤 것이 이 일입니까"여쭈니 문득 일할을 하시다.

요즘 참선 정진하는 이들이 밝은 선지식의 지도를 받지 않고 공부하다가 개똥같은 소견이나 가지고 알았다 해서 횡설수설하면서 눈먼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고 있으니 가히 슬프고 슬프도다.

이 부처님의 견성법은 명안종사의 지도하에서 바르게 정진해서 바른 진리의 정안이 열린후에 탁마를 해서 인가를 받아교화하는 것이 근본이니 사견에 떨어지지 말지어다.

모든 부처님과 도인이 전한 진리의 일구는 향상일구(向上一句)이다. 이 향상일구를 알아야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의 전신자채처(轉身自在處)를 아느니라.

어떤 것이 향상의 일구입니까 물으니 만리에 뻐꾸더기가 즐비함이로다.

'동국발전이 불교발전' 사명감으로

동국대 14대 총장에 재임 송석구 총장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동국대가 불교중심의 한국학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25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고불식을 갖고 제14대 총장에 취임한 송석구 총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을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재임의 기회가 주어진 만큼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며 학교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1995년 제13대 총장으로 취임한 후 승총장은 교육개혁 단행과 행정개선, 교육환경 시설 확대 등을 통해 학교의 위상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96년부터 98년까지 3년 연속 우수대학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 우수대학 평가에서 1위를 차지, 교육부로부터 1백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특히 오는 9월 착공되는 불교종합병원 건립사업은 불교계의 오랜 숙원사업을 이룩한 것으로 송총장이 그동안 다른 언떤 일보다도 심혈을 쏟아온 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 "지난 임기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중심으로 '동국발전이 불교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21세기를 선도해 나가는 대학을 건설하겠다"는 송총장은 "무엇보다 교세확장과 함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업무를 효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2003년 5월까지 불교종합병원을 완공하고 일산 제3캠퍼스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구중심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지원과 연구지원비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불교 중심의 한국학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밖에 행정업무와 관련, 효율화·신속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팀제운영, 연봉제 실시 등 행정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송총장은 "종립대학으로서 건학이념을 구현하며 교수·학생·직원과 인화(人和)단결하여 '세계속의 동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눈길끄는 조계종 교육원-포교원 사업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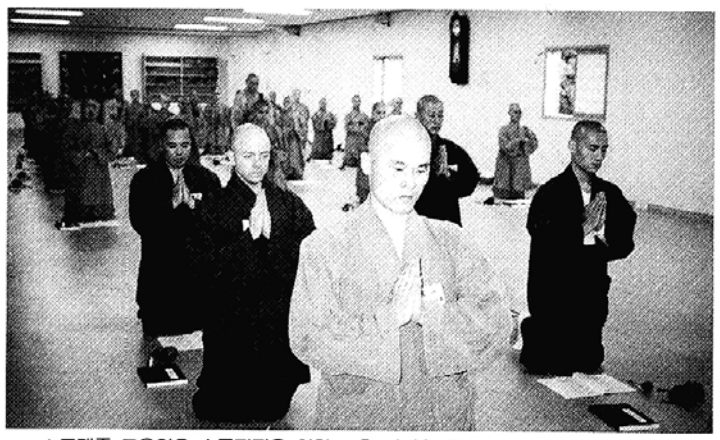
교육원 종풍선양 순회강연…교육법 개정
포교원 여성불자 조직·직장법회 활성화

교육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이 승풍진작을 위한 교육 개선을 목표로 2월 24일 발표한 올해 사업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종지종풍선양을 위한 순회특강이다.

지난 해의 종단사태를 교훈삼아 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도들의 애종심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기초교육부분에서는 출가정신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출가발원문 작성을 행자교육원 수료시에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발원문집〉을 간행할 예정이다.

기본교육부분에서는 교육기관 평가 프로그램 마련, 학사관리 강화, 기본교육 미이수자 학업 이수 독려 및 사미니승가대학 증설을 추진한다.



◇조계종 교육원은 승풍진작을 위한 교육 개선을 올해 목표로 삼았다. 사진은 지난해 길상사에서 열린 직할교구 행자교육.

연수회 입재시 포살법회를 의무화하고, 성보문화재 보존과 문화전승을 위한 연수도 마련하는 등 재교육부분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며, 교학연구 연찬회 구성 등을 통해 전문특수교육분야의 학인간 교류기회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원은 승풍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불교에서 승직제도의 역사와 현실' 주제의 학술회의를 5월경 실시하고, 사미(니) 및 구족계 수계식 등 교육과 수계업무의 일관성 강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또 수행풍토 진작을 위해 10월경 〈선원총람〉 간행과 함께 선풍진작 학술회의도 준비할 예정이며, 역대선원 방함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선원결제 대중명부 취합관리 작업도 전개한다.

교육원은 이같은 사업의 전개와 더불어 교육관련 종법령 제개정도 추진해, 승가교육체계 정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포교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22일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여성불자의 조직화, 외국인 한국불교체험 프로그램 실시, 사찰수련회 활성화 등 8개 사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포교원장 정련스님은 이날 사업계획 발표에서 "각계각층의 포교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포교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외 내실화와 함께 불자 조직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포교원은 법원화 이후 신도들의 신행체계화 및 행정과 조직체계의 정착에 역량을 쏟아왔고 일정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전문화 특성화된 포교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포교원장 정련스님은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교인'을 양성해 세상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포교원은 이같은 원칙 아래 △사찰수련회 활성화 및 대중화 △신행단체 종단등록 활성화 △여성불자 조직화 △포교전문인력 양성 △포교사단 강화 △외국인 한국불교체험 프로그램 △신도시 포교대법회 △인터넷포교 활성화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 한국불교체험프로그램은 4월부터 실시한다. 〈관련기사 2면〉

특히 여성불자 조직화는 신행활동 인구의 70~80%를 차지하고, 사회복지 환경운동 등 대사회적인 활동으로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현재 여성불교운동연합(회장 김묘주) 대한불교부인회(회장 구자순) 등 10여개 단체가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교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여성불자들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교원은 또 각 사찰의 여성불자들이 30~40대 고학력 주부들로의 중심이동에 주목하고 있다. 여성불자들의 사회활동을 통해 신행의 기복성을 극복하고 불교의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이은자 기자
(swjung@buddhapia.com)

해동 제일 지장기도보궁

귄 지장기도 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귄 철야기도 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교통편
도솔암까지 대형버스 올라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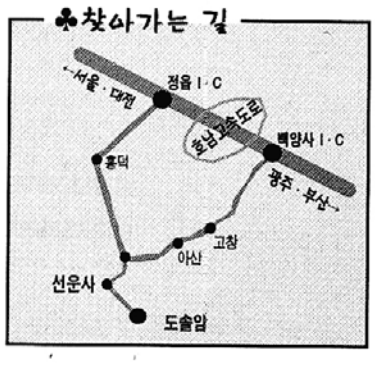
■ 승용차
경부선 → 호남선 → 정읍IC
남해고속·88고속 → 호남고속 → 백양사IC

■ 버스편
서울·경기·인천 → 정읍·고창 → 선운사행 버스이용
부산·경남 → 광주터미널 → 선운사행버스이용

■ 열차편
서울역 → 정읍역 하차 → 선운사행 버스이용
※선운사 매표소 입구에서 도솔암 소형버스 매일 수시운행

※선운사의 동백꽃은 3월 하순경부터 만개합니다.

♣찾아가는 길



선운사와 도솔암의 백제문화유산

▲ 천왕문과 만세루 (전북 유형문화재 제53호)

▲ 선운사 대웅전 (보물 제290호)

▲ 마애불상 磨崖佛像 (보물 제1200호 동양최대의 마애불, 높이 17m)

▲ 진흥굴 眞興窟 (진흥왕이 출가 수행한 진흥굴)

◀ 벽파율사비 (전북 유형문화재 제122호)

▲ 잠당선원 대웅전(보물 제803호)